함평군, 잿빛 산림 생명력 넘치는 '탄소저장숲' 탈바꿈

2023년 대동·신광면 641㏊ 불타

16억 투입 173㏊에 21만그루 식재

대동제 일원 조성…연 23t 탄소 흡수

함평군이 대형 산불이 휩쓸고 간 잿빛 산림을 생명력 넘치는 '탄소저장숲'으로 탈바꿈시키며 전화위복의 모범 사례를 쓰고 있다.

16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대동면과 신광면 일원을 덮친 대형 산불의 상처를 치유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산불 피해지 신속 복원 및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 대대적인 산림 복원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앞서 지난 2023년 4월 대동면과 신광면 일원에 발생한 산불은 641ha의 산림을 앗아가며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군은 단순한 조림을 넘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체계적인 복원 로드맵을 마련했다.

우선 훼손된 산림의 생태 기능을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해 부터 총 4단계에 걸친 연차별 인공 조림 사업에 착수했다.

올해 12월까지 국·도비 등 약 16억원을 투입해 피해 임야 173ha에 단풍나무, 산딸나무 등 경관과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4개 수종 21만1천565그루를 식재했다.

이는 삭막해진 산림에 다시 푸른 숨결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토양 유실 방지와 수원 함양 기능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동제 생태공원 일원에 조성되는 '탄소저장숲'이다.

군은 산림청 주관 '2025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15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대동제 인근 3ha 부지를 기후 위기 대응의 전진 기지로 만든다.

이곳에 조성될 탄소저장숲은 미세먼지 발생원과 생활권 사이에 숲을 조성해 오염 물질을 차단하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군은 탄소저장숲이 완공되면 연간 약 23.67t의 탄소 흡수와 0.05t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화마가 할퀴고 간 자리에 다시 나무를 심는 것은 단순히 숲을 복원하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약속"이라며 "이번 탄소저장숲 조성이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 도시 함평'을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함평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를 통해 식재된 나무들의 활착률을 높이고, 남은 단계의 복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함평=기영규 기자

"젠더폭력 2차 가해는 '사회적 범죄' 침묵 깨야"

목포여성상담센터·유관 기관 집담회

이주·청소년 등 취약층 교차성 조명

지난 15일 목포 남도마을로문화센터에서 열린 '젠더폭력 2차 피해 제도 개선 집담회'에서 목포여성상담센터 및 전남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 여성 단체가 젠더폭력 '2차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강력한 연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사단법인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에 따르면 전날 남도마을로문화센터에서 '젠더폭력 2차 피해 사례조사 발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목포여성상담센터 주관으로 전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남이주여성상담소,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 도내 광역 단위 기관들이 대거 참여해 머리를 맞댔다.

집담회는 젠더폭력 피해자 중에서도 이주 여성, 장애 여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청소년 등 취약계층 사례를 집중 조명했으며, 배수지(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정다윤(목포여성상담센터), 이혜리(전남이주여성상담소), 이은정(전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4명의 현장 활동가들은 발표를 통해 피해자들이 겪는 2차 피해의 실태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2차 피해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드는 것'으로 꼽으며, 온·오프라인에서 쏟아지는 비난, 조롱 등이 범죄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법인 영산의 조새미 변호사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법상 가해자 처벌 규정의 한계를 짚고 피해 유형별 법적 대응 방안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이밖에 참여 기관들은 이번 논의를 통해 ▲젠더폭력의 '교차성'을 공론화 ▲2차 피해 '공식적 폭력'으로 규정 ▲'피해자 중심'의 지원 시스템 혁신 요구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문옥희 목포여성상담센터장은 "피해자가 용기 내어 목소리를 냈을 때 사회가 그들을 안전하게 지지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연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영암군 '농촌왕진버스' 확대 의료 사각 없앤다

농식품부 사업 관내 8개 농협 선정

11개 읍·면 전역 한방·검진 등 혜택

영암군이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 주민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는 '농촌왕진버스' 사업을 관내 전역으로 확대한다.

16일 영암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6년 농촌왕진버스 공모사업'에서 영암군 내 8개 농협이 모두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국비 9천600만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억4천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선정으로 그동안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의료 서비스가 관내 11개 읍·면 전체로 확대돼 모든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영암군의 농촌왕진버스 사업은 시행 초기인 2024년 2개 농협(4개 읍·면)으로 시작해 지난해 4개 농협(6개 읍·면)으로 늘어났으며, 시행 3년차인 내년에는 8개 농협(11개 읍·면)으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 같은 성과는 군이 사업 신청 단계부터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을 위해 발로 뛴 결과로, 관내 농협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수요 조사와 의료 접근성 취약 지역 분석 등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쳐 공모에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영암 주민들은 거주지 인근에서 양방·한방 진료, 구강 검진, 물리 치료 등 양질의 종합 의료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영암=나동호 기자

무안국제공항활성화 추진위원회 등 지역 사회단체는 16일 오전 무안읍 상상창작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안공항의 조속한 개항 및 정상화를 촉구했다. 〈무안국제공항활성화 추진위원회 제공〉

"생존권 위협…무안공항 즉각 재개항해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위 성명 발표

국토부 무책임 규탄…재개항 로드맵 촉구

무안지역시민사회단체가 무안국제공항의 조속한 개항과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무안국제공항활성화 추진위원회 등 지역 사회단체는 16일 오전 무안읍 상상창작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토교통부는 무책임한 공항 폐쇄 연장을 즉각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재개항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발표에는 박일상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지역 사회단체장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역 단체가 정부 대책을 요구하며 성명을 발표한 것은 올해 들어서만 8번째다.

단체는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사고 수습을 이유로 국토부가 벌써 7차례나 폐쇄 조치를 연장해 내년 1월5일까지 문을 닫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이자 지역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처사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주·전남 여행업계와 무안 지역 관광·서비스업계가 입은 피해액은 약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수많은 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내몰려 지역 경제가 회복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단체는 공항 내 분향소 문제 해결도 요구하며 "유가족과 충분히 협의해 추모 공간을 외부로 이전하고 추모와 공항 정상화가 양립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단체는 "무안공항은 서남권 200만 시도민의 하늘길이자 지역 경제의 생명줄"이라며 "정부는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노선 확대와 인프라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활성화 대책을 즉각 발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안=김상호 기자

"비상구 폐쇄 등 신고하세요"

진도소방,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진도소방서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군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비상구'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16일 진도소방서에 따르면 소방 시설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발적인 안전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 중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주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차단하는 행위 ▲비상구와 피난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통행을 막는 행위 ▲방화문(셔터)을 용접하거나 쇄정해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누구든지 위법 행위를 목격하면 증빙 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진도=박세권 기자

완도군 'AI 수산양식 플랫폼' 과기부 장관상

제3회 스마트 빌리지 우수 사례 대회서

완도군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제3회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우수사례 발표 대회'에서 군의 '치유 바다 인공지능(AI) 수산양식 플랫폼'이 전국 1위인 대상에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지역 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19년부터 추진된 정부 역점 사업이다.

장관상을 받은 '치유 바다 AI 수산양식 플랫폼'은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통해 수온, 용존산소 등 양식장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인공지능(AI)이 분석해 최적의 양식 환경을 예측·관리하는 첨단 시스템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더욱 고도화해 어민들이 기후변화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수산 모델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도=윤보현 기자

'4천만송이 애기동백 향연' 신안 섬 겨울꽃 축제 개막

오는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신안군에 겨울을 붉게 물들이는 4천만송이 애기동백꽃의 향연이 펼쳐진다.

16일 신안군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18일까지 신안 압해읍 '1004섬 분재정원' 일원에서 '섬 겨울꽃 축제'를 개최한다.

축제가 열리는 1004섬 분재정원(사진)에는 3㎞에 이르는 애기동백 숲길에 식재된 2만그루의 나무가 이미 꽃망울을 터트려 정원을 붉은빛으로 수놓고 있다.

군은 축제 기간 약 4천만송이의 애기동백꽃이 절정을 이뤄, 관람객들에게 한겨울 추위를 잊게 할 만큼 화사하고 특별한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망대와 천사 날개 등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에서는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으며, '소원지 쓰기'와 내년 해당화가 필 무렵 발송되는 '나만의 애기동백 엽서 쓰기' 등 이벤트도 진행된다.

또한 분재정원 내 '저녁노을미술관'에서는 전문 작가들의 동백 관련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동백 그림 그리기 체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신안=양훈 기자

영광군, 정부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사업 선정

주민 설계·정부 지원 협력 모델

영광군은 1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돌봄, 교육, 생활 편의, 문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 서비스를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계획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신개념 협력 모델로, 영광군을 포함해 전국에서 6개 시·군이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영광군은 제도 시행 전부터 탄탄한 주민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실제로 '여민동락 사회적 거점 농장'과 '깨움마을학교' 등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돌봄·교육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군은 우선 사업비 1천만원을 지원받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거쳐 주민 수요 조사와 구체적인 서비스 공급 계획을 수립해 내년상반기 중 농림축산식품부와 정식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농촌 생활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 사회 서비스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